

중간시험 해설

경제원론2, 2017겨울학기, 서울대
조남운

1

1. 다음은 MBC라디오의 한 경제프로 2018년 1월 1일 방송분의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

- 이: (...) 올해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 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 한해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년 한 해는 경제가 꽤 좋아지는, 한 해로 치면 먼동이 트고 분주하게 하루가 시작하는 듯한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도 계속 회복될 것으로 보십니까?
- 곽: 기업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확인되지 않겠느냐.. 유럽은 드디어 양적 완화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미국과 같은 긴축 모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
-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경기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도 대출이 자가 많이 나갈 것이고 해서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겠어요

- 박: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간 것이 지난 해 라면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경기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수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무거나 사도 오르거나 하는 장은 올해는 아닐 것 같다. 작년에는 기관 패시브 전략만 따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올해는 선별하고 남들이 다 좋아 하는 것 보다는 나만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 곽: 의견이 다른 점이 있다. 하반기에 긴축모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절대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을 것이다. (...) 유의할 점은 과거와 달리 통화량이 너무 올라 있다. 지금의 자산가격 상승은 경기회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한 자산가격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긴축으로 넘어가니, 긴축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 미국은 이미 긴축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유럽연합이 합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긴축하지만 유럽은 확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유럽 모두 긴축에 들어가는 것이라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한 우위에 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좋은 기업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1a (송재민 작성)

(a) (10 points) 폐쇄경제에서의 AS-AD 곡선의 세로축 변수와 가로축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세로축 변수는 국내 생산을 전체의 종합적인 물가로 각 상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 뒤 가중평균한 전체물가수준이다

가로축 변수는 실질 국내총생산량으로 국내 경제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을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순수한 생산물의 증감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1b

(b) (10 points) 총 공급량의 측면에서 도출하는 단기총공급(SRAS) 곡선을 도출하고 그 근거에 대해 논하라

- 가격 경직성이 왜 공급곡선의 우상향과 관련있는지 명시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
- 설명이 부족한 경우 감점

1b (송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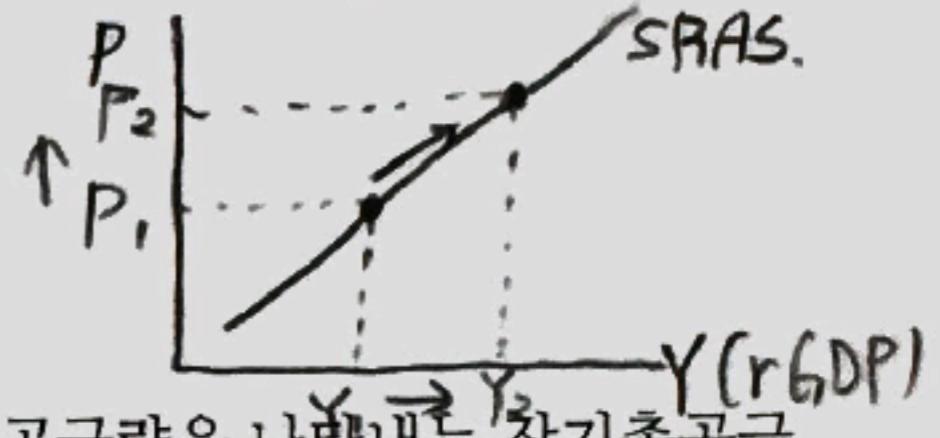
단기는 생산물의 가격이 경직적인 시기로 특히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기간이다.

단기에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이윤인 (매출-비용)에서 매출은 상승하고 [해박] 비용은 고정직으로 유지되어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해석) (감소)

따라서 단기총공급곡선은 물가가 상승할 때 총생산량도 상승하는 우상향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
송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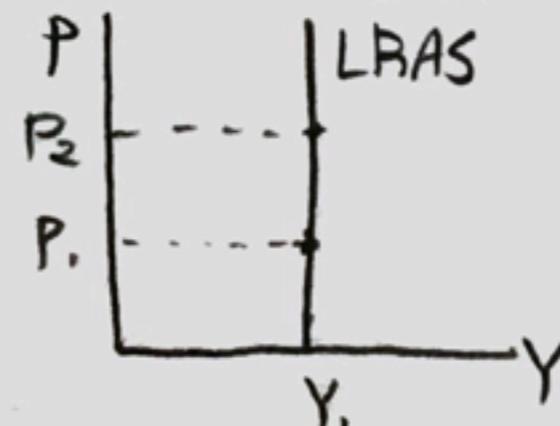
(a) (10 points) 모드 비용이 견지선이 해소되 사화에서 이 축 고급량을 나란히 차기총공급

1c (송재민)

(c) (10 points) 모든 비용의 경직성이 해소된 상황에서의 총 공급량을 나타내는 장기총공급(LRAS) 곡선을 도출하고 그 근거에 대해 논하라

모든 비용의 경직성이 해소되면 물가상승시 명목임금도 상승하여 기업의 이윤의 변화가 없다.

즉, 물가 상승시 매출의 증가분과 비용의 증가분이 동일하여 이윤의 변화가 없어 총생산량 수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총공급곡선은 물가가 상승할 때 생산량은 일정한 수직상태의 직선이 된다.



1d (송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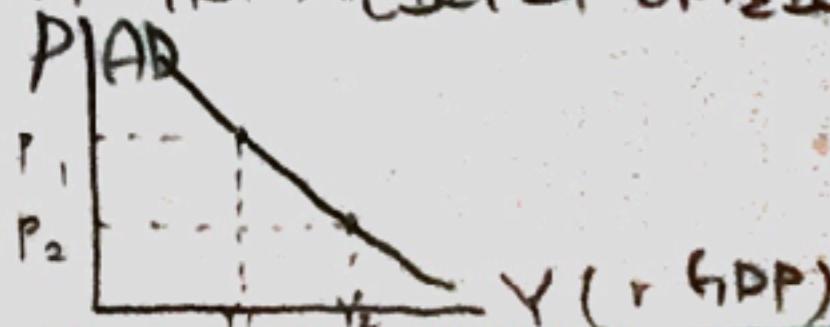
(d) (10 points) 총수요(AD) 곡선을 도출하고 그 근거에 대해 논하라

물가변화시 자산효과와 이자율효과로 수요량에 변화가 발생한다.

자산효과 : 물가 상승(하락) \rightarrow 보유 투자자산 감소(증가) \rightarrow 구매력 하락(상승) \rightarrow 소비자출 하락(상승)

이자율효과 : 물가 상승(하락) \rightarrow 환경변화로 대체보유량 증가(감소) \rightarrow 대체자금 공급 감소(증가) \rightarrow 이자율 증가(감소)
 \rightarrow 투자자출 감소(증가) 와 소비자출 감소(증가) = 저축증가(증가)

따라서 위의 자산효과와 이자율효과로 인해 물가상승시 총수요량 감소하는 우하향의 그래프가 도출된다.



1e (서정민 작성)

(e) (10 points) 총수요곡선은 총공급곡선과 달리 장 단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총수요곡선은 가격 변화의 영향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총공급곡선은 물가 조정 여부, 시기 등에 따라 이윤 차이가 나나,
때로는 수요자들은 언제나 정해 가격에 익숙하여 곧바로
거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으로는 독자가 종종하는
경우와 달리, 수요는 언제나 소득된 소비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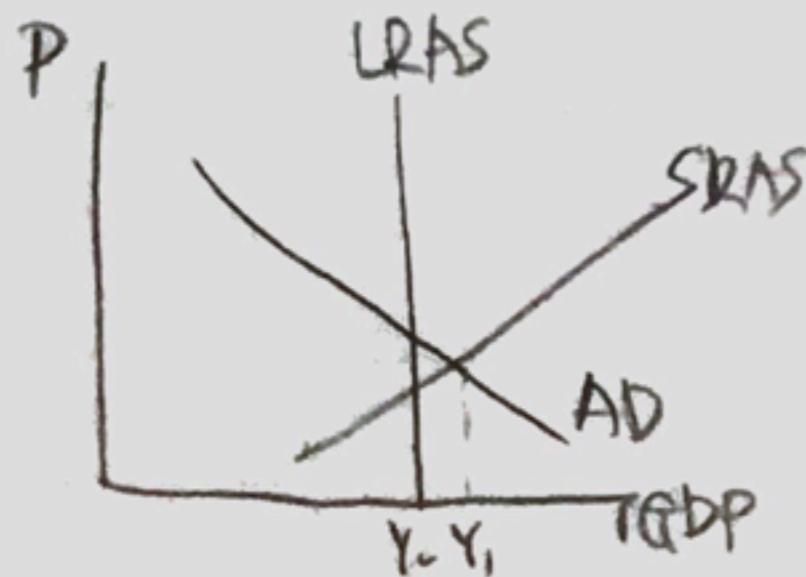
1f

(f) (10 points) 위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을 AS-AD 모형으로 (즉, LRAS, SRAS, AD 곡선으로) 표현하고 간단히 설명하라.

- 확실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장기균형상태가 아니라 는 것임
- 즉, 현재 미국의 상태가 LRAS, SRAS, AD 곡선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임
- 경기중립적 상황이라면 정책수단을 사용할 의미 가 없음: 정책수단의 목표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

1f (서정민)

- 미국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초정책, 시장경로, 규제로 해결되었는지.



- 이는 SRAS와 AD의 경쟁이 (Y_1) (Y_0) LRAS와 AD의 경쟁보다 훨씬 더 차이 나는 경향으로, 장기적 시장보다 짧은 기간에 경기를 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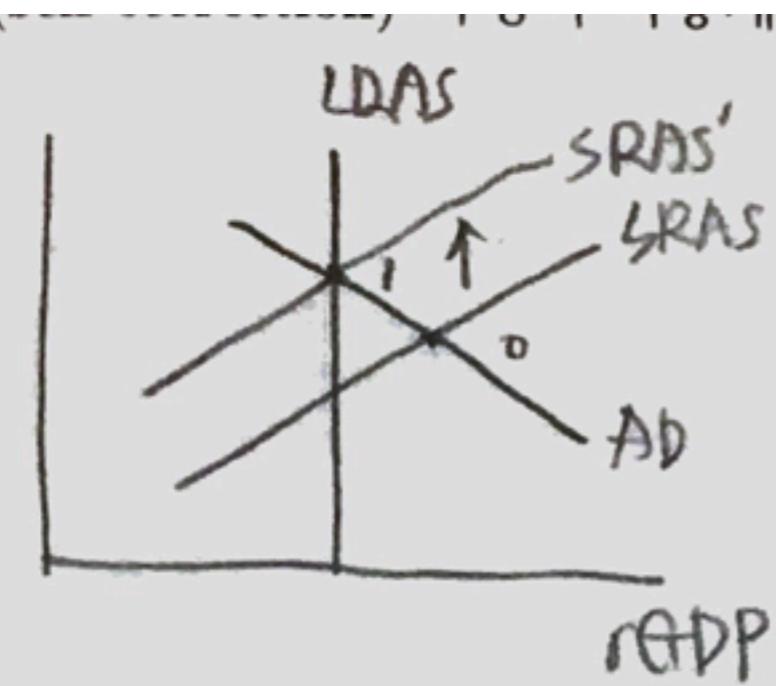
12872

1g

(g) (10 points) 이후 별다른 외부 충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미국의 자기 조정 (self correction)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하라.

- 1f에 오류 여부와 무관하게 1f의 상태에서 장기 조정 과정을 정확히 기술하면 감점 없음
- 가격 조정으로 인한 SRAS 곡선의 점진적 변동이 핵심임

1g (서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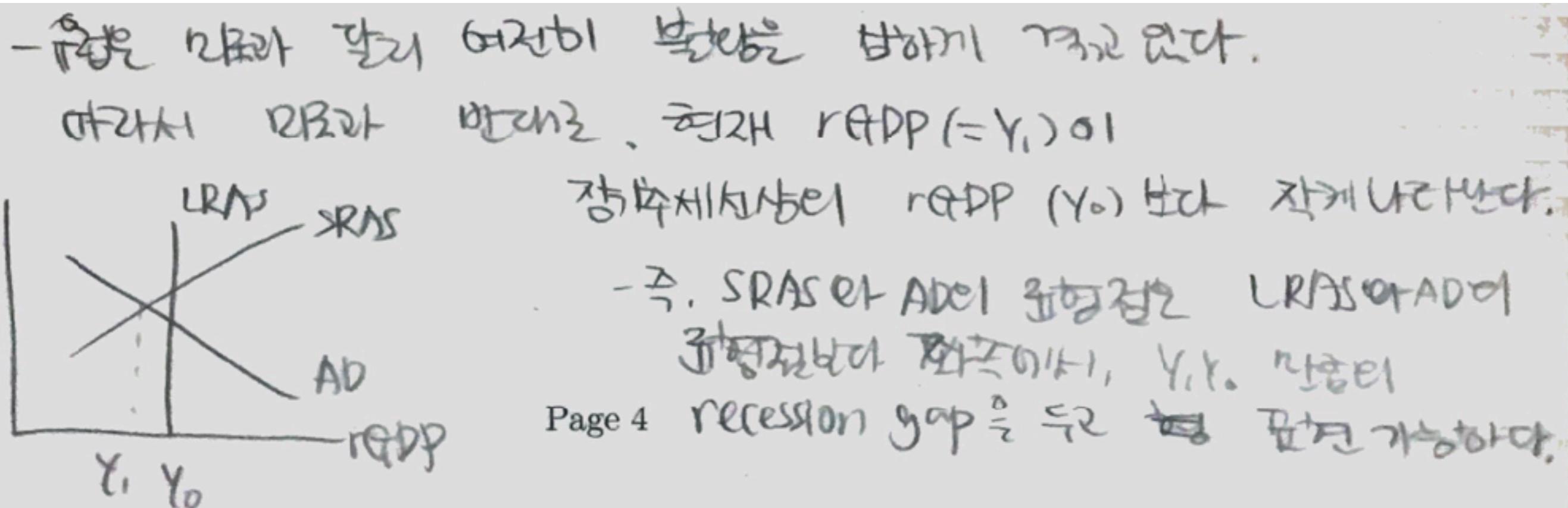


- 현재의 상황이 초기수요를 나타내면서, 기업의 매출개선, 투자자금 증가를 거쳐, 경기에서 실업률이면 실업률개선, 일률상승이 나타난다
- 이는 장기화 생산비용 상승, $SRAS \rightarrow SRAS'$ 상향이동으로 표시된다. 이는 AD & LRAS의 중립점이 $SRAS' & AD$ 중립점과 일치할 때까지 조정된다.
- 특히 D→I라지 증,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며 차기에는 될 것이다,

SRAS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

1h (서정민)

(h) (10 points) 유럽 연합의 경제 상황을 동일하게 표현하려 할 경우 미국과 동일할 것인가? 동일하다면 그 근거를, 아니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유럽 연합의 거시 경제 상황을 표현하라.



2a

2. 채권시장을 그래프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채권시장의 그래프 표현은 채권의 가격 (P)를 세로축으로, 채권의 거래량 (Q)을 가로축으로 설정한다. 축변수의 변화에 유의하며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a) (10 points)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채권의 가격만이 높아진다면,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라

-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2a (지미륜 작성)

채권의 수익률은

할인금액 $\frac{6}{\text{채권가격}} \times 9$

" "에 기울하라

으로 계산하는데 채권가격이 상승하면
분모는 커지니 분자는 작아지므로 수익률은 떨어진다.

2b

(b) (10 points)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채권의 수요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라 (Hint: 채권의 수요자는 채권의 구매자, 즉 가계이다)

- 2b, 2c 에서 P-Q 공간에 그래프를 표기하고 곡선상의 상태 이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하자면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함 없을 때” 수익률이 변한다는 것은 P조차도 변함이 없을 때 수익률이 변한다는 것이므로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함.
- 하지만 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아님

2b (지미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채권의 수익률만이 높아진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채권수익의 유인이 발생할 것이다. 채권의 수익률이란, 채권투자에서 취할 수 있는 이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미론

2c (지|로|룬)

- (c) (10 points)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채권의 공급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라 (Hint: 채권의 공급자는 채권의 발행자, 즉 기업이다. 채권 발행시 채권의 가격으로 채권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한다.)

--- (0.0점 ~ 1.0점)

공급자 입장에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금2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2d

(d) (10 points) 위 결과를 종합하여 채권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하여 그래프로 표현 하라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가령, 공급곡선을 AS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
- 2b, 2c 는 채권 “수익률”과 수요 공급관계이므로 축변수(채권가격)가 아님 \Rightarrow 2a의 결과와 결합하여 수요 공급 곡선을 도출해야 함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도출되는 것임

2d (지미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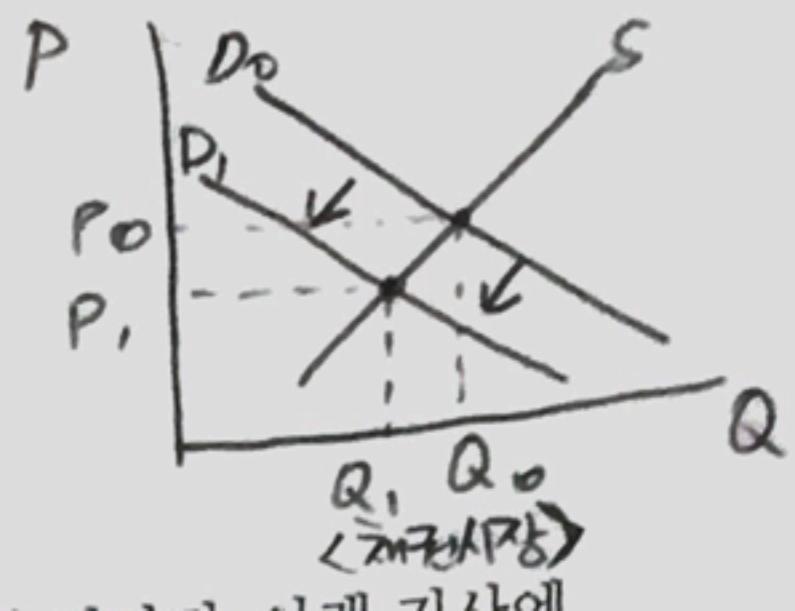
2e (송재민)

- (e) (10 points) 주식시장의 호재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아진다면 위 채권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그래프로 분석하라 (Hint: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투자의 측면에서 대체관계에 있다. 기업의 행태는 위 호재와 무관함을 가정한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시장의 지금이 이탈하여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

이 때 채권시장의 수요는 감소하여 채권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채권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한다.

/송재민



3

3. 아래 기사를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하자면, 아래 기사에 나오는 토마토지축은행과 토마토2지축은행은 별개의 은행이다.)

제목: 아침부터 예금 인출하려는 고객들 줄 이어… 영업정지된 ‘토마토 저축은행’과 혼돈하기도 (한겨레일보 2011년 9월 19일자, 김광수 송인걸 박주희 기자 작성)

토마토2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조치되지 않았지만,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과 혼돈하거나 저축은행의 잇단 영업정지에 불안이 고조된 고객들이 19일 부산 본점과 대전·대구 지점 등에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 쪽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먼저 온 고객 일부에게만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일부 고객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많은 고객들은 “내 돈을 왜 찾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생략)

3a (송재민)

- (a) (10 points) 위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마토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실 은행 리스트에 올랐으나, 부실 은행 리스트에 없었던 토마토2저축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했고 이 시기의 충격으로 결국 토마토2저축은행은 회생하지 못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하라 (Hint: 자기 실현적 기대)

은행이름의 유사성으로 인한 착각의 요인과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은행의 폐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긴 고객들이 집단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찾음으로 인해 맵니 저급준비금만 보유한 채 대출을 하던 은행에 유동성 궁금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와 이를 흔들리는 집단적인 비이성적 행동으로 인해 자기실현적 기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b (정문배)

- (b) (10 points) 만일 본인이 토마토2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한 예금자였고, 위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 논하라.

○ 예금 1억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라면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출하기 위한 시간적·정신적·물적적 비용이 드는
인출한 현금 보관비용과, 이자리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보(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인출하여
통장하는게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c)에서 살펴본다.

3c (정문배)

(c) (10 points) 만일 위 상황과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예금액만 1천만원이라면 다른 행동을 취했을까? 이에 대해 논하라.

취했을까? 이에 대해 논하라.

○ 1천만원이 예보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라면 (b)와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예보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2차 출금성이 부도박경우 예금액 전부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기회비용(시간, 노력 등등)에도 불구하고 인출하고 향후에 통한하는 것에 친선이다.

정문배

그리고 그 결과가 아아으 경우 위 두 질문의 답은 수정될

3d (정문배)

(d) (10 points) 예금보험공사라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위 두 질문의 답은 수정될 것인가? 이에 대해 논하라.

(a) (10 points)

것인가? 이에 대해 논하라.

○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위 두 경우 예금 차주의 손해는 '예금인출'이 된다. 즉, 이는 맹크론을 통해서 카드·금융·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처럼 금융위기·경제위기의 전파·전염 속도를 늦추고 그 진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a

4.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사업에 대한 다음의 진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A)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킨만큼 실질GDP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승수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실질GDP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B)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부실한 정부 사업이라도 경기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a) (10 points) 위 진술 (A)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4a

- G를 추가적으로 ΔG 증가시킬 경우, 승수효과는 발생함
- 하지만 구축효과로 투자지출이 감소하므로 rGDP가 증가된 $\Delta G \times [승수]$ 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증가시킨만큼(ΔG)” 증가하는 것은 아님
-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함없이” G만 증가한다면 rGDP가 $\Delta G \times [승수]$ 만큼 증가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음

4a (김진영)

(a)

김진영

대개의 경우,
정부지출은 가계지출과 달리 경제소비성장이 없기 때문에 지출의 자체증액이
실际 GDP 증가로 이어지며, 승수효과로 인해 $\frac{1}{1-MPC} \times (\text{지출증가율})$ 만큼의 추가
증가율이 발생, 실际 GDP도 그 만큼 커진다.

하지만!

정부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세수 실적의 개선되어 발생하는 양이 수입이나, 그동안의 재정
흑자·분수에서 나오는 것과 아니라면 정부 지출 확대는 오히려 차악적인 결과으로 인한
대부자금시장의 부정적 여파로 인해 최악의 경우 rGDP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즉, *ceteris paribus* 가 아닌에 걸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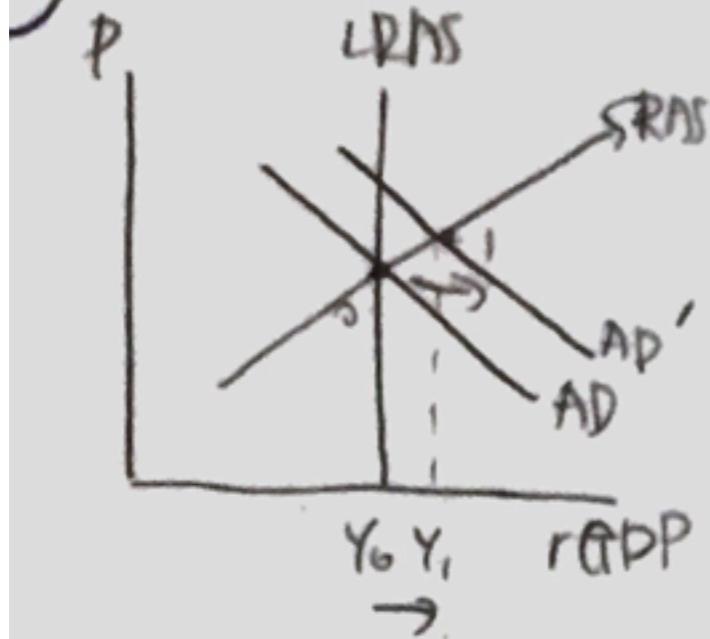
4b

(b) (10 points) 위 진술 (B)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 갑작스런 경기 충격 발생시 긴급 처방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님
- 4a가 틀렸더라도 그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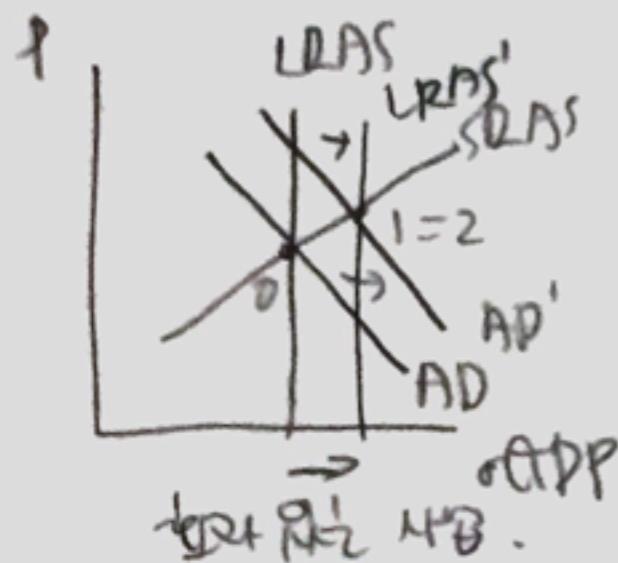
4b-1 (문인하)

① 단기 : 탄소.



-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초기가격,
단기 가격이 다른 AD 우측이동 ($AD \rightarrow AD'$)에
반응해 $rGDP$ 가 개선된다 ($P_0 \rightarrow P_1$)
- 즉, 경기가 확장된다. ($O \rightarrow I$)
- CB는 물가지표로 타당하다.

② 장기 : 복합



물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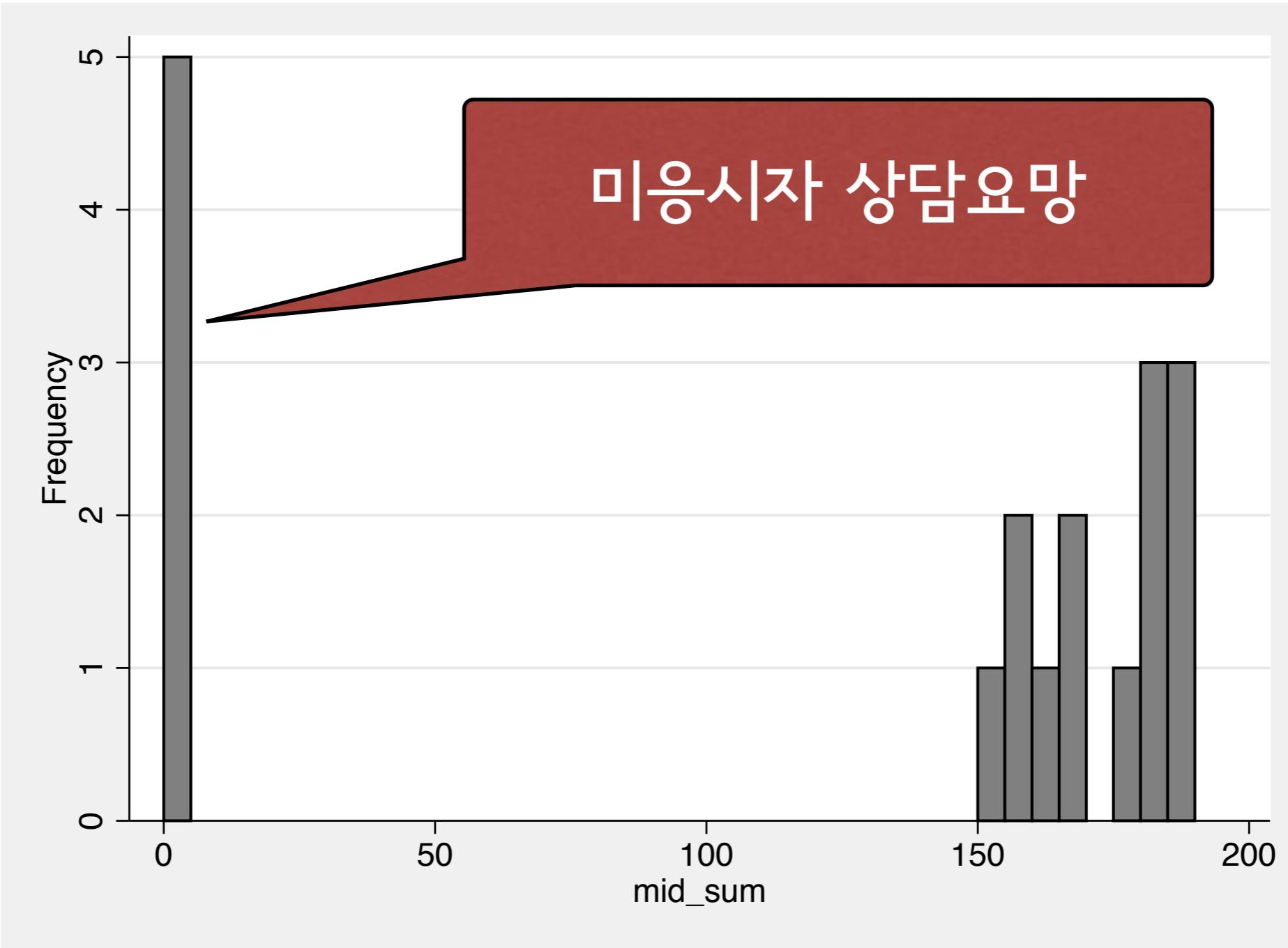
4b (계속)

- 개인정보가 신호적인 장기이,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 사용이 끊어졌을 때 기상청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는, 흐름은 사업이라면 장기수명이 생긴다. GDPR은 뛰어하지 않는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물가가 높았을 때, 단기적 보급 ~~장기적~~ 양이 다른 단기성이 반영되며 물가는, 단기적 물가가 단기적 양에 따른 단기성이 반영된다. (SRAIS → SRAIS') 즉 단기수명 1은 유지되거나 물하고 이전 GDPR 규정의 2018 경영화가 된다.
- 결국, 흐름은 신용은 장기로 평가를 부정시키지 못한다. 물가수명과 유사한 데 GDPR은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단기적 장기수명으로 (B)는 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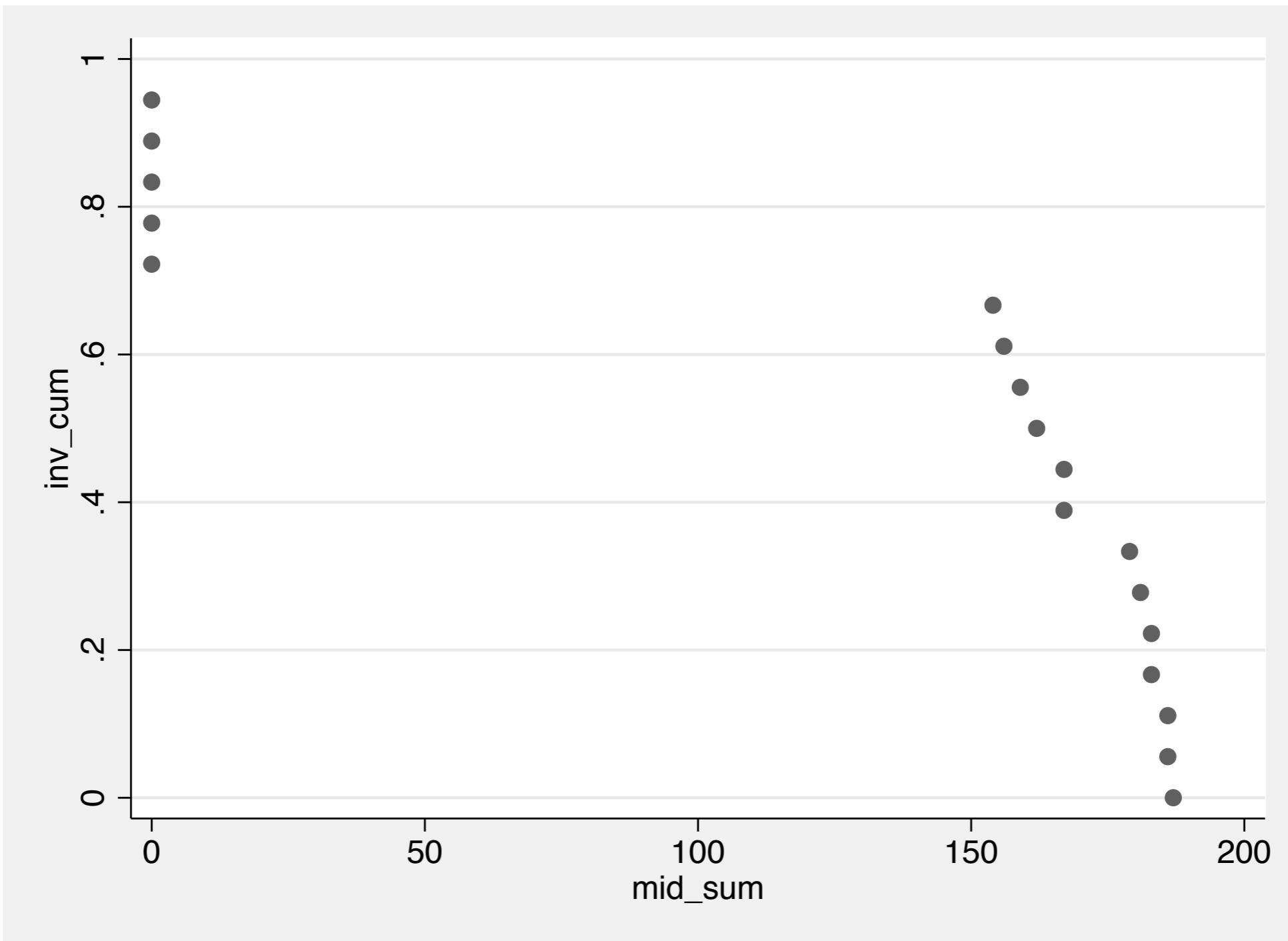
기초통계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mid_sum	18	125	80.45678	0	187
mid_sum					
	Percentiles	Smallest			
1%	0	0			
5%	0	0			
10%	0	0	Obs		18
25%	0	0	Sum of Wgt.		18
50%	164.5		Mean		125
		Largest	Std. Dev.		80.45678
75%	183	183			
90%	186	186	Variance		6473.294
95%	187	186	Skewness		-.936455
99%	187	187	Kurtosis		1.95487

중간점수분포



중간점수분포 (2)



시험지 확인 및 질의 응답